

김학범호, 호주 넘으면 AFC 챔피언십 사상 첫 우승 보인다

2014년 첫 대회 4위 시작으로 최고 성적 준우승

오늘 오후 10시15분 호주와 AFC U-23 4강전

‘9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향해 순항 중인 김학범호가 ‘올리쿠(올림픽+호주대표팀의 애칭 사커쿠)’ 호주와 맞선다. 호주를 넘는다면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하면서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15분(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탐마삿 경기장에서 호주와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4강전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 반면 패하면, 3·4위전에서 마지막 한 장 남은 올림픽행 티켓을 놓고 혈투를 치러야 한다.

김 감독과 선수들은 지난 조별리그부터 ‘매 경기 가 결승’이란 슬로건을 앞세워 임하고 있다. 호주전도 마찬가지다. 호주는 지난해 열린 이번 대회 예선과 최근 연습경기에서 한국과 2연속 무승부를 거둘 정도로 만만치 않지만, ‘우리 것만 준비한다면 문제없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했다.

U-23 대표팀의 당면 과제는 9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란 대업을 달성하는 데 있다. 호주를 넘는다면 한껏 가벼운 마음으로 결승에 임할 수 있지만 3·4위전으로 떨어진다면 모든 것을 건 승부를 펼쳐야 한다.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 정태욱은 “3·4위전으로 빠진다면 결승보다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꼭 결승전에 오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요르단전 환상적인 원발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트린 이동경 역시 “올림픽 진출이 최우선이지만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건 선수로서 당연한 일이다. 우승이 목표”라고 선언한 바 있다.

호주를 넘을 경우 사상 첫 우승도 바라볼 수 있다. AFC U-23 챔피언십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2014년 대회가 1회 대회였다. 하지만 한국이 2년마다 치러지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다. 초대 대회와 2018년 대회에는 4위를 차지했고, 최고 성적은 지난 2016년 대회에서 거둔 준우승이다.

4호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도 일단 4강



대한민국 U-23 축구대표팀 선발 선수들이 19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요르단과의 8강전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에는 진입했다. 특히 김학범호는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전승(4전 4승)을 기록한

팀이다. 호주를 넘어 우승까지, 이번 대회 김학범호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매 경

기가 결승’이라는 U-23 대표팀에게 남은 두 번의 결승전을 지켜볼만하다.

“마지막 퍼즐을 맞춰라”...LG 새 외국인 타자·한화는 김태균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막바지 작업 한창...FA 미계약 5인 잔류 유력 속 온도차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스프링캠프 돌입(2월1일)이 임박한 가운데 전력 보강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LG 트윈스는 외국인 타자 영입이 남았고 FA 고효준, 손승락(이상 롯데), 오주원(키움), 김태균(한화), 오재원(두산)은 막판 힘겨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LG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기존 투수 타일러 윌슨, 케이시 캘리와 재계약했으나 외국인 타자 영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최근 외국인 타자 때문에 애를 먹었던 LG는 지난해도 아쉽게 영입한 토미 조셉이 부상으로 중도 퇴출됐고 대체 외국인으로 데려온 카를로스 페게로는 수비가 아쉬워 재계약을 포기했다.

이러다보니 행보가 더욱 조심스럽다. 몇몇 유력 후보는 조율 과정에서 최종 성사에 실패하기도 했다. 현재 LG는 거둬들여 후보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신중 mode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차명석 단장이 ‘캠프 시작 때까지는 (외국인 타자를)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새 외국인 타자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한화가 이어진 FA 시장은 이제 19명 중 5명만 미계약으로 남아 있다. 안치홍(롯데), 김선빈(KIA), 오지환(LG), 전주준(롯데)까지 4명의 대아가 이미 행선지를 정했고 준계약 선수들도 대부분 동지를 틀었다.

20일 현재 고참급에 속하는 투수 고효준(롯데), 손승락(롯데), 오주원(키움)과 베

타랑 타자 김태균(한화), 오재원(두산)만 이 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모두 원소속팀 잔류를 우선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오재원이 두산과 3년 재계약에 합의한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 중인 상황. 조만간 잔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 역시 한화 잔류가 유력하다. 정민철 단장은 “구단의 뜻을 전달했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이고 몸값이 상당하기에 외부 이적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주원의 협상은 답보 상태다. 아직 원소속팀과 이렇다 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키움과 오주원 양 측 모두 서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가치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구체적인 조건에 있어 시각차가 존재한다.

고효준과 손승락 역시 마찬가지다. 성민규 단장 선임 후 개혁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롯데의 시선과 두 선수의 기대치에 상당한 갭이 있다. 고효준의 경우 구단이 직접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인 앤드 트레이드도 고려 중”이라고까지 밝혔으나 이 또한 쉽지 않다. 다만 구단은 “FA 미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구위가 떨어진 손승락 역시 4년전 첫 FA때 4년 60억원의 대형 계약에 성공했으나 이번에는 잔류 조차 쉽지 않은 초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美언론 “토론토 선수단, 류현진 영입 소식 듣고 다들 흥분”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들이 FA 류현진 영입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뒷이야기가 전해졌다.

미국 언론 ‘디 애슬레틱’은 21일(한국 시간) 지난 주말 열린 토론토 구단의 팬페스트 행사 이모저모 10가지를 소개했다. 이 중에는 류현진 영입 관련 선수들의 흥미로운 반응도 포함됐다.

이 매체는 “토론토 선수들이 류현진 영입 소식을 듣자마자 로스 앳킨스 단장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야수 보 비셋은 “(류현진 영입 후) 단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다른 선수들도 똑같이 문자를 보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나에게도 많은 문자가 왔다. 그만큼 다들 흥분한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FA 자격을 행사한 류현진은 지난달 4년간 800만 달러에 토론토와 계약했다. 연간 200만 달러의 액수가 밀해주듯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에게 에이스, 멘토 등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팀 내에 마땅한 에이스가 없던 상황에서 류현진 영입은 선수단 내부에서도 감쪽 놀랄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류현진이 지난 시즌 LA 다저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검증된 에이스이기에 선수들의 기대는 더욱 컸다는 설명이다.

외야수 랜달 그리척 역시 “그는 던질 줄 아는 투수”라고 류현진을 높게 평가한 뒤 “빠른 공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던져야 하는 지 알고 있는 투수다. 또한 젊은 투수들에게도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 매체는 이어 “좌완 유망주 투수 라이언 보루키는 이번 스프링캠프 기간, 류현진에게 컷페스트볼(커터)을 배울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유망주 트랜트 손튼도 류현진의 레퍼토리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류현진 효과가 선수단 전체에 퍼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류현진 99번, 김광현 33번...美언론 주목한 새 유니폼

토론토 블루제이스 99번의 류현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33번의 김광현. 현지 언론이 이들 유니폼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MLB.com은 20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새로운 선수를 유니폼으로 소개했다. 새롭게 팀에 합류한 선수로 꼽히는 캐나다 출신 웨인 그레츠키의 번호가 99번이기 때문이다. NHL에서는 99번이 전 구단 영구결번으로 지정됐다. 캐나다에 속한 토론토 입장에서 99번은 여러모로 의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흔쾌히 류현진에 허용했다.

가장 먼저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가 소개됐는데 토론토에서는 류현진이 선정됐다. MLB.com은 “토론토의 감쪽 선발투수 영입은 팀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며 “또한 그는 아주 멋진 번호(99번)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한화 시절부터 LA 다저스에서까지 99번을 등번호로 달았다. 이는 새로운 팀 토론토에서도 유지됐는데 구

단 사상 최초의 99번 등번호라는 특별한 의미도 지녔다.

무엇보다 토론토 입장에서 99번은 의미가 남다른 수밖에 없는데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캐나다 출신 웨인 그레츠키의 번호가 99번이기 때문이다. NHL에서는 99번이 전 구단 영구결번으로 지정됐다. 캐나다에 속한 토론토 입장에서 99번은 여러모로 의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흔쾌히 류현진에 허용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는 세인트루이스의 33번을 입게 될 김광현이 선정됐다.

부연설명은 특별하지 않았다. MLB.com은 “현재 세인트루이스 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새 유니폼”이라며 이번 비시즌 세인트루이스가 영입한 선수가 김광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인비, 세계랭킹 두 계단 상승한 14위...고진영 26주째 1위

박인비(32·KB금융그룹)가 여자골프 세계랭킹을 두 계단 끌어 올렸다.

박인비는 21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4.20점을 기록, 지난주 16위에서 두 계단 오른 14위에 자리했다.

박인비는 전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0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에서 하타오카 나사(일본)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박인비와 함께 준우승을 차지한 나사는 6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개막전 우승자 가비 로페스(멕시코)는 세계랭킹을

12계단 끌어 올려 44위에 자리했다.

고진영(25·하이트진로)은 26주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박성현(27·솔레이어)이 2위를 유지했고 김세영(27·미래에셋)은 전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6위에 자리했다. 이정은(24·대방건설)은 7위다.

김효주(25·롯데)가 한 계단 오른 12위, 유소연(29·메디힐)이 18위, 허미정(31·대방건설)이 19위를 각각 기록했다.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종목은 2020년 6월 말 세계랭킹 기준 15위 이내 선수의 경



고진영(왼쪽)과 박인비

우 국가당 최대 4명이 출전할 수 있다.현재 순위대로라면 한국은 고진영, 박성현, 김세영, 이정은이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